

‘나주영산강축제’ 개막...시민·관광객 9만명 ‘구름인파’

11일까지 꽃·공연·체험 가득 가을축제
억만송이 꽃단지·농업페스타 인기몰이
루나·이충주 ‘왕후, 장화’ 뮤지컬 열연
박지현·홍지민 공연...드론·불꽃쇼 절정

“2026 나주영산강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9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억만송이 가을꽃이 펼쳐진 영산강정원에서 낮에는 체험과 정원을 즐기고 밤에는 드론과 불꽃쇼,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을 만끽하며 영산강의 가을을 온몸으로 즐겼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 ‘2026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첫날 약 9만명이 방문하며 축제장을 가득 메웠다.

축제 개막 전부터 약 12만평 규모로 조성한 대규모 꽃단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며 관심을 모은 가운데 평일에도 개막 당일 영산강정원과 주변 일대에는 이른 시간부터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영산강정원과 영산강 둔치, 들살과 동심 일원에 펼쳐진 억만송이 코스모스를 비롯해 해바라기, 백일홍, 담짜리, 메밀 등 다채로운 가을꽃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축제장 하늘잔디광장에 마련된 포토존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2026 나주영산강축제’가 지난 7일 시민·관광객 등 9만여명의 구름 인파가 모인 영산강정원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영산강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윤병태 나주시장이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나주시제공>

영산강에 서식하는 수달을 형상화한 ‘영달이’를 비롯해 다양한 토퍼어린이가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드넓은 잔디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여유로운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영산강축제와 연계해 열린 ‘2026 나주농업페스타’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나주배와 쌀, 한우, 고추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홍보·판매 공간과 함께 고구마 수확, 벼 탈곡 등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놀이와 학습을 함께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농업페스타존에서는 포토존 인증사진을 촬영한 방문객에게 키캡 키링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돼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해가 지면서 개막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영산강정원 주무대에서는 뮤지컬 배우 루나와 이충주가 출연하는 축제 주제공연 뮤지컬 ‘왕후, 장화’가 펼쳐졌다.

주제공연이 끝난 뒤에는 영산강 밤하늘을 무

대로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쇼가 이어졌다.

수많은 드론이 음악에 맞춰 하늘을 비행하며 영산강과 나주의 역사, 미래 비전을 다양한 빛의 이미지로 표현했고 이어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개막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관람객들은 영산강 위로 펼쳐진 빛과 불꽃의 장관을 바라보며 박수와 환호로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

개막 축하공연에는 가수 박지현과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무대에 올라 열기를 이어갔다.

“목포 대전환 사업 추진 역량 발휘”

강종철 제52대 목포부시장 취임

강종철 제52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부시장이 취임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강종철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근대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에서 강성회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목포의 대전환을 앞당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역량을 발휘하고 중앙부처와 통합특별시와도 긴밀히 소통하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강성회 시장이 계획하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부시장은 “혼자 앞서 나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공직자들과 같이 고민하며 풀어가겠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해남 출신인 강종철 부시장은 옛 전남도 총무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인재육성교육과장,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자치행정본부장을 맡아 광역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안 대응 능력과 조직 소통 역량을 인정받았다. /목포=정해선 기자

“고향 발전 위해 모든 열정 쏟겠다”

강성일 제33대 강진부군수 취임

강성일 제33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부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강성일 부군수는 취임사에서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고향 강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공직자로서 더 없는 축복이자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며 “고향 강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내며 마음껏 일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 칠랑면 출신인 강 부군수는 1989년 강진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강진군 총무과장과 보건소장을 역임한 뒤 옛 전남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농식품유통과장, 대변인실 홍보지원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자치행정과



농식품 유통, 홍보 분야를 두루 거치며 기초·광역행정 전반에 걸친 경험을 쌓았다. 강 부군수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진원 군수를 보좌하고, 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등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탬 방침이다.

강 부군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미래 신산업 유치, 스마트 농수축산업 육성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조직 내부에서는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자긍심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영암군, 수확철 농기계 사고 관리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8일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도로 주행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남 지역 농기계 사고는 136건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사고가 10·11월 수확기에 집중됐다.

이 시기에는 트랙터와 콤팩트 등 농기계작

업장과 농경지 사이 도로를 이동하는 빈도가 잦다. 운행 전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저속차량 표시등과 반사판 등 등화장치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운전 금지, 운전자의 탑승 제한 등 기본 수칙 이행도 필수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 사용법을 전파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군 ‘캠핑관광박람회’ 소비 효과 지역 곳곳 확대

오늘부터 3일간 오시아노에서 개최

4천여 캠핑객 관광·상권 연계 강화

김치담그기 체험·버스투어 프로그램

해남군이 캠핑관광박람회 방문객의 소비를 행사장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해남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26 전남광주 캠핑관광박람회’ 방문객이 해남 곳곳을 방문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캠핑박람회 판매장 내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김치담그기 체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김치담그기 체험은 10일 주무대 앞에서 2회에 걸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역 농산물 3만원 이상 구입 영수증 소지자가 참여할 수 있다.

캠핑객들이 버스를 타고 해남 곳곳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녹우당과 우수영 등 3~4시간 코스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해남을 로컬푸드 판매장을 경유해 캠핑에서 사용할 식재료 등의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버스 운행은 금요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된다.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가까운 전통시장과



매장을 방문, 구매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9일에는 우수영 오일장, 10일에는 화원 오일장을 연계해 전통시장 장보기도 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방문객의 발길과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캠핑관광박람회를 시작으로 행사와 지역 상권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전남광주 캠핑관광박람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해남군이 주관하는 박람회는 캠핑카·카

박지현은 시원한 가창력과 활기찬 무대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흥을 돋웠고 홍지민은 폭발적인 성량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였다.

개막 첫날 9만명이 찾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2026 나주영산강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

8일에는 아이비와 조권, 마이클리가 함께하는 ‘뮤지컬 드라마틱쇼’를 비롯해 나주시립합창단의 대표 창작음악극 ‘아랑사 아버지’, 이전공공기관 동아리 공연과 ‘따로 또 같이 오케스트라 16’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에는 날짜별 대표공연과 함께 어린이·가족 체험, 나주농업페스타, 영산강 가족정원 페스티벌, 미식과 전시 등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나주시는 축제 기간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급급적 무료 직행 셔틀버스 이용을 당부했다.

나주시청과 한전KDN 앞, 영산포둔치체육공원 등 3개 권역에서 축제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약 10분 간격으로 중간 정차 없이 운행되며 축제장까지 약 15분에 이동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과 함께 가을의 추억을 만들게 돼 매우 뜻 깊다”며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나주에서 행복한 가을 추억을 가득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해안 경관 ‘생일도 돌레길’

완도군, 10월 추천 관광지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8일 “푸른 바다와 기암절벽 등 해안 경관이 어우러진 ‘생일도 돌레길’을 10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일도 돌레길은 바다와 숲, 마을이 이어지는 해안산책 코스다. 서성항에서 출발해 용출 갯돌해안, 금마리 갯길, 금곡 해수욕장을 거쳐 금곡마을까지 총 10.6km 구간으로 3시간30분 가량 소요된다.

출발지인 서성항에는 지명에 맞춘 초대형 생일 케이크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한다. 해안 길을 따라 다도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인근 어촌 마을에서 섬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완도군은 추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돌레길 방문 후 완도문화관광 누리집에 후기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증정하는 연계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이재각 진도군수, 취임 100일 군민과 소통

타운홀미팅 열어 군정 성과·방향 공유

진도군은 지난 7일 군정 대화의실에서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일의 변화, 군민과 함께 그리는 진도 대전환’을 주제로 민선 9기 취임 100일 군민 소통간담회(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사진> 이재각 진도군수는 지난 100일간의 군정 성과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100일을 “행정의 주어를 군수가 아닌 군민으로 바뀌은 시간”이라고 설명하며 현장 소통, 생활 불편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와의 의료 분야 등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그동안 ‘군수 직통 문자 소통폰’ 운영과 현장 방문, 읍·면 순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신사꽃게당과 매월



전북 2천kg 납품 업무 협약, 햇빛소득마을 2개소 선정 등을 소개했으며, 복지와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협력 확대를 통한 검진, 의료비 감면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지난 100일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 방향을 다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군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